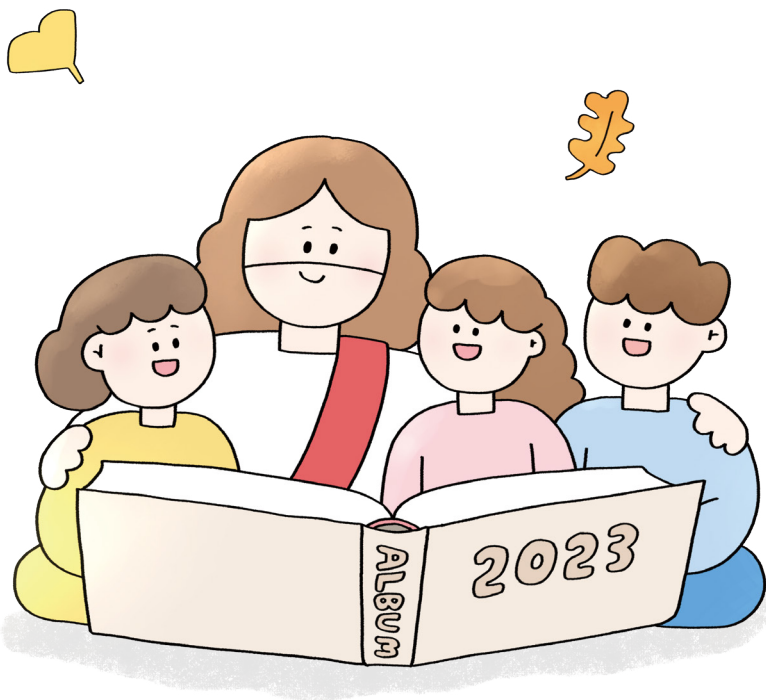


2023 추수감사절 캠페인

# 한 달 감사노트



# 감사한달

## Contents

|             |   |
|-------------|---|
| 감사한달 주제곡    | 4 |
| 감사한달 챌린지 달력 | 5 |
| 감사챌린지 진행 방법 | 6 |
| 감사노트 활용법    | 7 |

### Week 1

|              |   |
|--------------|---|
| 찬양 사역자 감사간증문 | 8 |
|--------------|---|

### Week 2

|          |    |
|----------|----|
| 주제별 감사묵상 | 32 |
|----------|----|

### Week 3~4

|               |    |
|---------------|----|
| 감사 이어가기: 감사일기 | 64 |
|---------------|----|

감사한달은 감사노트와 함께  
매일 감사묵상, 매일 감사찾기, 매일 감사표현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는 신앙 회복 챌린지입니다.

## 감사한달 주제곡

### 범사에 감사를 주심 밋네

손경민 작사

손경민 작곡



## 감사한달 챌린지 달력

매일 감사노트 작성 후 체크하세요. ☑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11/5<br>START!<br>→  | 11/6  | 11/7  | 11/8  | 11/9  | 11/10 | 11/11 |
| 11/12                | 11/13 | 11/14 | 11/15 | 11/16 | 11/17 | 11/18 |
| 11/19<br>추수감사주일<br>🍂 | 11/20 | 11/21 | 11/22 | 11/23 | 11/24 | 11/25 |
| 11/26                | 11/27 | 11/28 | 11/29 | 11/30 | 12/1  | 12/2  |

감사  
한달

## 감사챌린지 진행 방법



감사노트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해  
유튜브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감사노트, 유튜브에 올라온  
콘텐츠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11.06~12.02)



나에게 주신 은혜와  
오늘의 감사내용을  
작성합니다.



감사를 마치면  
감사달력에 체크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제목이 있다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 감사노트 활용법

묵상 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묵상 글을 읽으며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새삼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감사

1. 새로운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2.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3.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함에 감사합니다.

# 찬양 사역자 감사간증문

Week

1



|     |                              |                          |
|-----|------------------------------|--------------------------|
| MON | 주제곡<br>'범사에 감사를 주심 민네'       | 작곡가<br>손경민 목사            |
| TUE |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br>후회하심이 없느니라 | 피아워십<br>이동선 전도사          |
| WED | 이루어지지 않아서,<br>그래서 더욱 감사      | 만나교회 예배 인도자<br>우미셀 목사    |
| THU |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br>감사할래요      | 주의 은혜라, 총만, 감사<br>지선 전도사 |
| FRI | 100가지 넘치는 감사                 | 시와 그림<br>김정석 목사          |
| SAT | 오늘 이 하루도                     | 마커스워십<br>소진영 찬양 인도자      |

# 주제곡

##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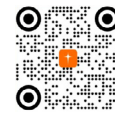
작곡가  
손경민 목사

Week 1

Day MON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기쁜 날도 있지만 마음이 힘든 날도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될 때도 있지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의 감사 이유와 동기가 세상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감사 이유와 동기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 이유와 동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느 때나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전에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모두 감사할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은 광야였고, 추운 겨울 같았고, 전쟁 같았지만 그 가운데서 깊은 감사로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총리가 되었지만 여러 고관의 계략으로 사자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알고도 다니엘은 감사하다고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의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고난에 빠졌지만 더욱 풍성해집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 감사의 이유인 사람은 뜨거운 여름에도,  
춥고 외로운 겨울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믿  
음의 감사는 시들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는 시들지 않으며,  
불평이나 원망하는 마음을 사라지게 하고,  
오늘을 버티게 하며, 은혜를 풍성하게 합  
니다.

###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나의 감사는 마르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풍성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찾으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는 시들지 않네  
고난 중 더욱 피어나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  
범사에 감사를 찾으리

더 깊은 감사로 주님께 드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나의 감사를 주께 드릴 때  
더 큰 감사로 채우시리

믿음 가지고 감사를 누리리  
나는 오늘도 감사하리

감사  
한달

## 묵상 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 오늘의 감사

#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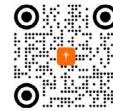
피아워십  
이동선 전도사

Week 1

Day TUE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저는 피아워십과 분당우리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동선 전도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역사하신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202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사한 은혜의 순간들을 나뉘보려 합니다. 2021년을 시작하며 개척 때부터 10년을 함께했던 교회를 사임하고, 피아워십의 전임 사역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의 시간은 마치 광야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피아워십의 전임 사역자로서 사역을 위해 아내와 아들 셋을 데리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했고, 온 가족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지 못했지만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시작한 걸음이었습니니다.

코로나19가 심했던 시기인 만큼 목요일 배 사역을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했기에 온라인으로라도 매주 예배를 올리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길 원했습니다. 매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쉽

지 않았지만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커져가는 예배의 은혜로 목요일예배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월드비전의 2021년 감사챌린지에 찬양과 인터뷰로 함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월드비전 2021 감사챌린지의 주제곡을 손경민 목사님께 부탁드려 '범사에 감사를 주심 믿네'라는 곡을 발매하게 되었습니다. 이 곡의 가사는 이찬수 목사의 <감사>라는 책을 통해 작사했습니다. 기도로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는 가운데 모든 것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사챌린지 주제곡을 녹음하고 촬영하며 누구보다 제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길 소원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제 안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단 하루도 버티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2021년을 광야에서 혼자 시작한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감사'가 넘치길 원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자리를 계획하고 세워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라고 생각하고 달려왔던 2021년도 상반기가 마무리되고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 때부터 제가 걷고 있는 길은 광야가 아닌 축복의 길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말도 안 되는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감격이 차올랐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육신이 아무리 지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 2021년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시작하던 순간을 떠올려봤을 때 하나님은 지혜 없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를 위해 축복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지만 지혜 없는 저는 그 길을 광야라고 단정 지었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에는 후회함이 없으며, 가장 좋은 길과 완전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2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도 베네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부족한 저는 제가 아닌 하나님만 기대하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삶을 돌아보면 '감사'라는 키워드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저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저 감사함으로, 끝까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틴다면 훗날 돌아봤을 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  
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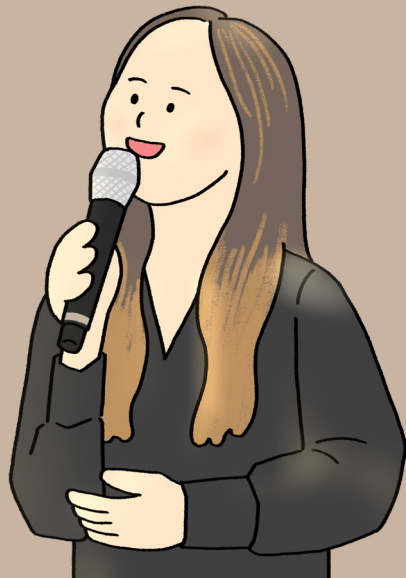
## 오늘의 감사

#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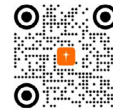
만나교회  
우미셀 목사

Week 1

Day WED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느지막이 씻고 머리를 말리며 욕실 창문 밖을 바라보았는데 집 앞에 경찰차 몇 대가 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아래층으로 내려가보니 경찰들과 열쇠 수리공이 현관문 도어락을 떼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모두 나가주십시오.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고2 여름방학에 저희 집은 망했습니다. 망했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로 저희 가족은 그때부터 백팔십도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대저택에서 방 2개인 아파트로 겨우 이사를 갔으며, 평생을 우아하게 사모님으로 사셨던 엄마는 마트로 일하러 나가셨고, 아버지는 급한 대로 택시 운전을 시작하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개념조차 모르고 살았던 철부지 10대인 저는 비싼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할 수 없어서 동부에 있는 음대 진학을 포기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립대 아무 곳이나 진학하게 됩니다.

만족스럽지 않은 대학에 다니면서 저도 모르게 열등감이 생기고, 우울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던지 저는 10년 동안 매일 밤 집을 뺏기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슬픔, 실패, 열등감, 자격지심에 휩싸여 반짝반짝 빛나야 할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어둠 속에서 흘려보냅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시간이었음을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학생 무렵, 길을 잃은 채 세상 이곳저곳을 기웃거릴 때 우연히 친구들을 따라 교회라는 곳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리만치 가슴이 두근두근 요동치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무슨 말인지, 어떤 내용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성령님께서 '더 듣고 싶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라는 마음을 제게 주신 거라 확신합니다.

###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더욱 감사

그 후 계속 특송하러, 찬양하러 교회에 가 목사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제 신앙이 깊어질수록, 제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은 그동안 세상에서 듣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가난은 비참한 거야. 너네 집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나서지 말고 찌그러져 있어. 너는 영원히 저 일류 대학 나온 친구들을 따라갈 수 없어. 너희 가정은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온전히 회복되지 않을 걸. 한 가정을 거의 파탄 지경으로 만든 네 부모는 책임감 없는 루저야”라는, 제 자존감을 짓밟았던 세상의 음성 대신 주님은 이런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너의 그런 연약함을 사랑해. 너의 그런 약함을 축복해.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줄래? 내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어. 내가 이미 너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계획해 놓았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딸이란다.”

그때는 숨기고 싶었던 수치스러운 과거를 지금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회복시키고, 그 누구도 꿈꾸지 못하고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아름답고 놀라운 미래를 저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는 올해로 한국에 온 지 11년째 되었습니다.

11년 전 인천공항에 발을 내디딘 20대 소녀와 지금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제 모습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제 모습과 오늘날의 제 모습은 판이하게 다르지만, 10년 세월을 뒤돌아보니 그동안 저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보입니다.

제가 바라고 원했던 삶이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욱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의 약함을 저의 자랑으로, 저의 실패를 간증으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딛는 발걸음 또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미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  
한달

### 묵상 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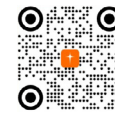
### 오늘의 감사

#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래요

지선 전도사

Week 1

Day THU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  
도 감사할래요.” 뜨거운여  
름으로 막 접어든 2011년  
6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  
했습니다. 제 힘으로는 결  
코 할 수 없는 이 제목으로

40일 새벽 기도를 하던 어느 날, 꿈에도 상  
상하지 못한 첫째 아이 은찬이의 감전 사고  
가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백팔십도 달라졌습니다.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이었지만 매일 극심한 통  
증과 사투를 벌이는 아이를 그저 지켜볼 수  
밖에 없는 힘겨운 나날이었습니다.

타들어간 아이의 넷째 손가락이 결국 소  
생하지 못하고 뼈마디가 제 눈앞에서 가루  
가 되어 바스라지던 순간을 결코 잊을 수  
가 없습니다. 내 어린 시절에 겪어야 했던  
아픔, 고난과는 차원이 다른 애통하는 고통  
이 오열로 번졌습니다. 한바탕 흘린 눈물  
이 제 눈을 씻기고 나자 아이의 사라진 손  
가락 뼈처럼 생명력을 잃은 영혼들이 보이  
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제게 하신 일  
은 믿음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  
음을 함께 누리게 하심이었고, 말씀의 감  
동을 삶을 통해 체험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은찬이와 저는 수개월의 병원 생활 동안 우  
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는 소  
풍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아  
름다운 목소리가 제가 받은 최고의 달란트  
인 줄 알았던 제게 ‘감사’라는 달란트를 발  
견하게 하신 하나님. 주님께 받은 감사 덕  
분에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었던 시립합창  
단을 그만두고 찬양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  
었습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난 올해 여름, 저는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힘을 경험했습니  
다. 월드비전과 함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  
터 아프리카 땅을 밟고, 그곳의 영혼들을  
만나는 일은 제게 손꼽아 기다리는 소망과  
같았습니다. 1년 전부터 방문 계획을 잡고  
나니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시  
키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찬양 사역으로 방문하는 곳곳마다 르완  
다에서 만나게 될 아이들을 위해 기도를 부  
탁드렸고 수천 명의 기도 부대가 생겼을 즈  
음, 출국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둘째 아이의  
발가락이 부러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  
고 일주일 뒤엔 셋째 아이까지 발가락 골절  
로 누나와 똑같이 통갑스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계속되는 사역 일정을 소화하고 집에 돌아오면 절뚝거리는 두 아이를 돌보며 출국 준비까지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출국일이 한 발짝씩 다가와 걱정스럽고 무거운 마음이 가득할 때, 거짓말처럼 남편까지 무릎 십자인대가 완전히 파열되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족 중 3명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나니 주변에서도 “가족들 두고 가실 수 있겠어요?”라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곤 했습니다. 그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지니 답이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내 곤고함과 가난한 마음을 통해 주님 밖에 바라볼 수 없는 가장 간절한 때를 주셨구나. 지금이 주님을 찬양하기 가장 합당한 때구나. 복음을 들고 나가기 가장 좋은 때구나!’

믿을 수 없는 고백이 씬 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준비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가장 강력하게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가족을 지키실 완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25시간을 날아 드디어 아프리카 르완다 땅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의 세 자녀처럼 너무나 존귀

하고 사랑스러운 세 아이를 만났고, 하나님이 주신 너른 마음으로 아이들을 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이제 6남매의 엄마입니다. 할렐루야!

고백할 것이 너무 많지만 딱 한 가지를 꼽는다면, 제 삶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줄 알았던 저를 찬양을 통해 세상을 누비며 영적으로 고아와 같은 영혼들을 돕는 자로 사 용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를 결단할 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사를 고백할 때 감사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노래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  
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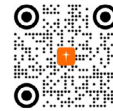
## 오늘의 감사

## 100가지 넘치는 감사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

Week 1

Day FRI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저는 최근 인도로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경험한 것은 뿌연 안개가 도시를 덮고 있어 저녁임에도 시야가 맑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교사님께 여쭙보니 안개가 아니라 미세먼지라고 하시더군요. 인도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한데, 맑은 날 미세먼지 양이 우리나라에서는 휴교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셨습니다.

남부는 그나마 괜찮지만 도시가 몰려 있는 북부는 굉장히 심하다면서, 특히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많아 매연까지 겹쳐 공기가 상당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나라의 화창한 날씨와 맑은 공기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국토가 엄청 넓다 보니 제가 방문한 1월에는 북부에서도 동쪽은 춥고, 서쪽은 더워 다른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기온 차가 컸습니다. 첫날 숙소에서 잤을 때 델리 지역은 밤에 히터를 틀고 자야 할 정도로 추웠는데,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아 겨울에 냉수 샤워를 하는 기분으로 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보일러 스위치가 있었는데 그 사실을 몰랐던

거지요. 다음 날 보일러 스위치를 켜는데도 샤워기에서는 온수가 나오지 않아 하는 수 없이 세면대에서 물을 한 바가지씩 받아 한 번 뿌린 다음 벌벌 떨며 기다렸다가 또 뿌리면서 겨우 샤워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도 역시 우리나라의 발달된 주거 시설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더군요.

이뿐 아닙니다. 사역 장소로 이동하던 중 주유소에 들렀는데, 주유하는 동안 공용 화장실에 갔던 동행한 사모님이 들어가자마자 도망치듯 나오시는 게 아닙니까. 알고 보니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위생 상태가 심각했던 모양입니다. 우리나라 주유소나 휴게소의 공용 화장실은 얼마나 깨끗한가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운전할 때 차선을 거의 지키지 않더군요.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테트리스' 게임처럼 공간만 있으면 차들이 몰려들어 3차선 도로가 5차선, 6차선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앞차와 바짝 붙어 다니고, 급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며, 엄청난 경적 소리와 하이빔이 난무했습니다. 우리나라 교통 문화가 얼마나 수준 높은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도에는 신분을 네 단계로 나누는 카스트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신분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사람들로, 옛날 우리나라의 '백정'에 해당하는 인구가 2억 명이 넘습니다. 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신분이 바뀌지 않는 데다, 윤회사상을 믿다 보니 열심히 일해 현실에서 벗어나기보다는 무조건 다음 생에 네 가지 계급 안에 드는 신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낫다고 생각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리엔 노숙인이 넘쳐나고 쓰레기가 나뒹굴어 지저분합니다. 우리나라 거리와는 풍경이 사뭇 달라 이 또한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사한 생각이 드는 순간이었죠.

이 외에도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으로도 수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단기 선교팀은 '감사제목 100가지 쓰기'를 미션으로 진행했는데, 하루나 이틀 안에 100가지를 다 채웠을 정도로 인도는 힘듦, 아픔과 함께 감사한 마음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방해와 함께 10일 일정 중 집회 여덟 번, 숙소 이동 여섯 번, 국내 비행기 탑승 두 번, 택시 타고 가다 길을 잃어 국제 미아가 될 뻔한 일 등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저는 인도에 체류하는 동안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며 찬양했습니다. 그 결과 집회를 통해 한인 교회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고, 눈물과 통성의 기도가 회복되고, 인도 현지인의 두통이 사라지고, 골절이 치유되는 등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함으로 축사하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이 먹고도 남았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 기도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감사제목과 기도를 통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내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  
한달

---

## 오늘의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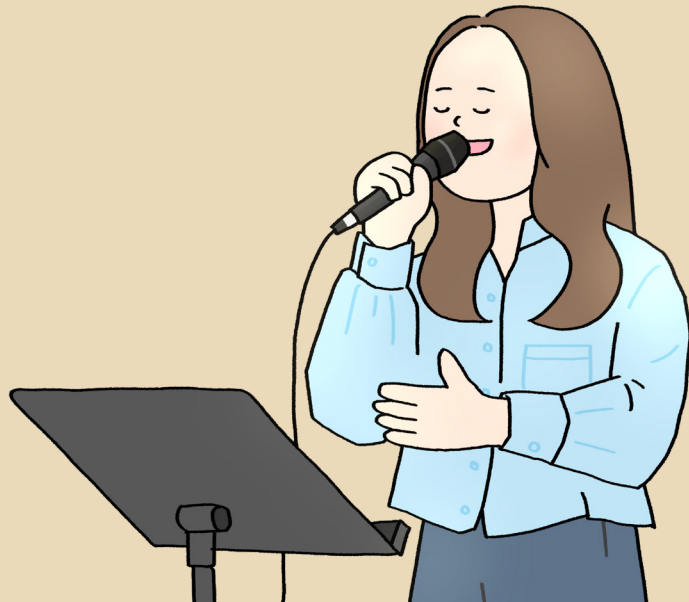


# 오늘 이 하루도

마커스워십  
소진영 찬양 인도자

Week 1

Day SAT



소진영 찬양 인도자의 찬양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오늘의 감사



## 주제별 감사묵상

Week

2



|     |            |         |
|-----|------------|---------|
| SUN | 나에 대한 감사   | 이지선 교수  |
| MON | 가족에 대한 감사  | 이지선 교수  |
| TUE | 교회에 대한 감사  | 서민준 학생  |
| WED | 이웃에 대한 감사  | 장경원 권사  |
| THU | 환경에 대한 감사  | 유미호 센터장 |
| FRI | 나라에 대한 감사  | 김은진 집사  |
| SAT | 하나님께 대한 감사 | 이찬수 목사  |

# 나에 대한 감사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선 교수



Week 2

Day SUN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제가 '감사'에 대해 배운 것은 사고를 만나고 몸도 마음도 가장 아팠던 때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만난 교통사고로 전신에 55%의 피부에 중화상을 입고 두 계절이 지났지만 퇴원을 할 수 있을까? 꿈도 못 꾸던 시기였습니다. 진통제만이 잠시 통증으로부터 견딜 만한 시간을 허락해 주던 유일한 숨 쉴 구멍이었습니다.

사는 게 뭔지, 살아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모호해져 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한가운데에 쓰러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구해 주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길이 없는 사막 한가운데에, 광야에 버려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엄마는 "하루 한 가지씩 감사할 거리를 찾자"고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사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는 길은 '감사 찾기'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모두 원망하고 불평할 것밖에 없어 보였는데, 신기하게도 감사할 것을 찾으니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갔던 날, 이제는 걸어서 화장실에 갈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왼손으로 손가락을 잡고 제 입에 밥을 넣을 수 있었던 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안간힘을 써도 열지 못했는데, 처음 문고리 잡고 문 열었던 날엔 이제 문 열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처음 제 손가락으로 환자복 단추구멍 하나를 채울 수 있었던 날,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걸어서 계단 몇 층을 올라가면 그날은 그것에 감사했고, 그런 일도 없는 날엔 살아 있어서 가족들과 눈 맞추고, 목소리 들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 나에 대한 감사

‘정말 그런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보고 나니, 그동안 당연히 내 것이라 여겼던 그 어느 것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그 진실은 제게 진짜 ‘감사’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진심으로 지금 내가 누리는 것, 내게 주어진 것, 내게 남겨진 모든 것을 감사의 고백으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감사 찾기는 그저 감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입술로 시작한 감사가 내 귀를 통해 다시 나의 마음으로 들어와 새겨졌고, 오늘의 감사거리를 찾게 하신 분께서 분명히 내일도 또 다른 감사할 거리를 주시리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진통제가 결코 줄 수 없었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주었습니다. 감사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어제보다 좋아진 오늘을 발견할 눈을 뜨게 해주었고, 또 오늘보다 좋아질 내일을 소망할 힘을 주었습니다.

감사  
한달

<지선아 사랑해>(이지선 지음, 문학동네) 중에서

## 묵상 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 오늘의 5가지 감사제목

## 나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3가지 감사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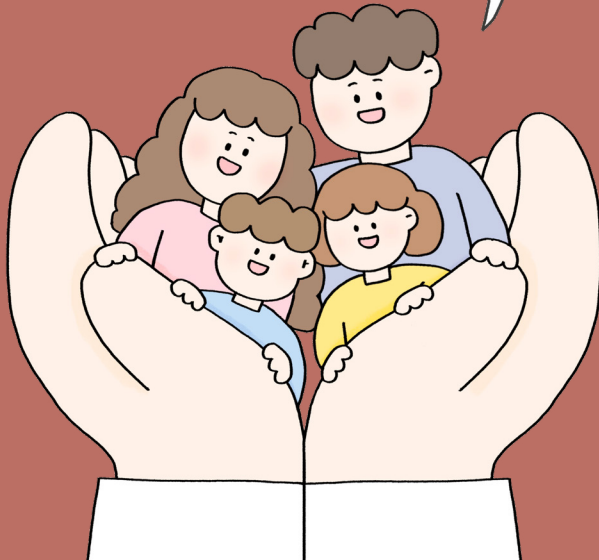
- 예) · 스스로 토닥토닥 안아주기  
· 나를 위한 섬과 감사편지 쓰기  
· 나의 장점 찾기

# 가족에 대한 감사

이화여자대학교  
이지선 교수

우리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해♡



Week 2

Day MON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아팠던 시간, 제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 존재와의 비교도 멈춰야 했습니다. 피부 이식을 받지 못한 얼굴에서는 하루 종일 진물이 흘러나왔고 화상을 입은 피부가 딱겨 7개월 동안 눈도 감기지 않았습니

다. 이식한 피부마저 약해져 녹아내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기막힌 상황을 남과 비교하거나 사고 이전의 나와 비교하기를 그만두자고 결심했습니다. 남과 비교하자면 나는 불행 중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었고, 사고 전의 나와 비교하다 보면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다가 분함이 치밀어 결국 더 불행한 사람이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애초 읊과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을 부정하며 나의 태어난 날을 저주해야 하는 것이 그 길의 마땅한 종착지였습니다. 그래서 비교하기를 멈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들을 찾았습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이 부러웠지만 살아남아서 가족과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피부가 약해서 제대로 환자복도 입지 못하는 나를 생각해서 일부러 제일 수수한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고 나를 만나러 오는 이들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친구들과 내 상황을 비교하기를 그만두고, 그저 쏟아지는 눈물을 꼭 참고 내 병실 문 앞에서 서로 울지 말자고 다짐하고 들어와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나와 함께 깔깔거리며 장난쳐 주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했습니다.

나보다 더 힘들어 보이는 이들과 비교하며 감사할 이유를 찾지 않았고, 남들과 비교하며 더 불행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저 내가 지금 누리는 오늘에서 감사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럼으로써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는 훨씬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잃은 것보다 내게 지금 남겨진 것에 감사하고, 남보다 못 가진 것을 아쉬워하기보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리라 믿습니다.

## 가족에 대한 감사

감사와 행복은 남과 비교해서 얻는 상대적인 것이어서는 안 됨을, 좀처럼 변하지 않고 웬만해선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얻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제가 이것을 배운 데에는 오래전 확인했던 엄마의 사랑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자려고 엄마랑 누워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엄마에게 조금은 엉뚱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엄마, 만약 나랑 엄마랑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엄마는 바꿀 수 있어?”

“그럼, 주지. 전신마취만 하면 되는데.”

늘 이식할 피부가 모자랐던 저였고, 원래 남의 피부를 이식하는 것은 면역반응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라서, 엄마는 이식할 피부를 준다는 소린 줄 알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는 거 말이야...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제가 다시 고쳐 물었습니다.

“그럼, 지선아. 천 번 만 번 바꾸지. 할 수만 있는 거라면, 엄마는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바꿀 수 있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온 엄마의 대답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나서 그냥 그렇게 돌아누워 엄마의 사랑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모님 사랑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식이 힘든 길, 아픈 길 갈 때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대신해 주고 싶은 마음, 그게 부모님 마음 안에 담긴 사랑인 것을 배웠습니다.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또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한 발 내딛을 힘이 됩니다.

감사  
한달

<꽤 괜찮은 해피엔딩>(이지선 지음, 문학동네) 중에서

## 묵상 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 오늘의 5가지 감사제목

### 가족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3가지 감사표현)

- 예) · 부모, 자녀 간 세족식 하기  
· 부모, 자녀 간 감사질문과 감사편지 쓰기  
· 가족끼리 꼭 안고 셀카 찍기

# 교회에 대한 감사

분당우리교회 고등부  
서민준 학생



Week 2

Day TUE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우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서민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감사'라는 주제로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기에 앞서, 먼저 교회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즉 하나님의 이름 아래 모인 성도들의 모임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임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즉 교회의 존재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인 교회는 항상 건강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공간이지만, 그 공간 안에 모인 이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병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로 가득한 곳임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모습 안에서도 감사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감사의 마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는 제 개인적인 감사의 마음이지만, 전국에 계신 수많은 성도님도 함께 공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병든 사람'인 우리를 어떤 자격이나 조건 없이 교회라는 공간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평범하다 못해 초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지도, 가정이 부유하지도, 어떤 분야에 재능이 있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있지도, 잘생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데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평범한 저에게까지 찾아와 은혜를 베풀시고 저를 사역과 섬김의 자리에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은혜롭게 사용하시며, 차별하지 않는 공평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린도후서 6장 9~10절)

인생의 나침반과도 같은 이 말씀은 제 모습이 약하고 초라해 보일 때면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 다시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습이 병들고 죄인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기에 죄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를 상한 갈대나 꺼져가는 등불처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부르셔서 용서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일깨워주시죠.

둘째는,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공통된 목적을 가진 공동체라는 사실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고, 그 안에서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교회'라는 이름으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소속된 분당우리교회 고등부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진 학생이 많습니다. 학업과 입시라는 현실을 마주한 고등학생임에도 시간을 내어 교회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 시간을 지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환경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혼자자 아닌 공동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때로는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공동체의 존재는 믿음 생활을 하는 데 굉장한 원동력이 됨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를 이끄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심에 따라서 그분 뜻대로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앞으로 어떤 은혜 속에 교회를 이끌어가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가끔 교회에 다니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리고 사회에서 교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때 크게 실망하면서 앞으로 교회가 저에게 은혜를 채워줄 수 있을지 의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교회는 내가 다스리는 곳이니 네가 앞서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단다.”

그 답변에 “그렇지요. 주님,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고 나면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던 시각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실 교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곤 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이렇게 제가 느끼고 경험한 교회에 대한 세 가지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는데요, 전국에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또 다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하루는 교회에 대한 감사제목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그리고 특별히 감사의 마음이 모든 성도님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감사  
한달

---

### 오늘의 5가지 감사제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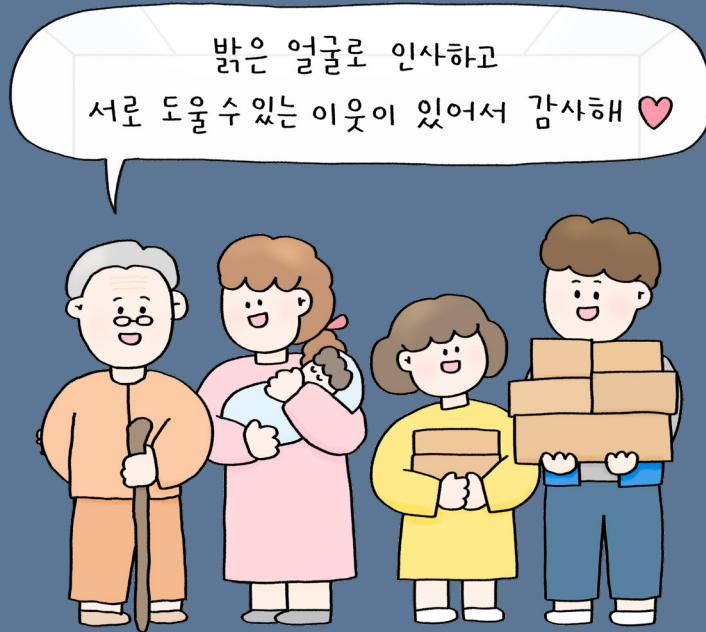
교회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3가지 감사표현)

예) · 목회자와 성도에게 감사영상, 감사문자 보내기



# 이웃에 대한 감사

구청 공무원  
장경원 권사



Week 2

Day WED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감사란 무엇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감사'란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또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평상시 그분들에게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느꼈는지, 또 감사한 마음을 얼마나 전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고, 공무원으로서 존재의 이유를 기억하며 주민들에게 감사함을 느끼면서 일하기보다는 사무적으로 대하고 필요할 때에만 도움을 요청했던 강박한 제 모습에 부끄러운 마음이 불쑥 들었습니다.

지역민들은 자신의 일도 아닌데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아무런 대가 없이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며 이웃 섬기기를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수해 복구나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돌봄 및 음식 대접,

무더위와 추위로 힘들어하는 이웃을 돌보는 일 등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주민들의 모습에 공무원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19년 전 공무원이 되어 동사무소 (지금의 동 행정복지센터)에 첫 발령을 받아 근무했을 때 일입니다. 관할 지역 내에 폐지를 주워 집 주변에 쌓아놓은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곳에 불이 나는 바람에 그동안 모아놓은 폐지가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불은 금방 꺼져 큰 피해는 없었지만, 화재로 타다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일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쌓아둔 쓰레기가 타면서 나는 악취와 별레가 들끓자 쓰레기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처리해야 할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있던 중 주변에 사시는 이웃들이 먼저 나서서 어르신을 돕겠다며 삼삼오오 모여 불에 탄 쓰레기를 치우고 주변을 청소하는 데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생긴 일까지 내가 처리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앞섰던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동시에 아무

## 이웃에 대한 감사

런 대가 없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이웃들의 모습에 감사함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지만,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는 모습을 볼 때면 이러한 대가 없는 사랑이야말로 우리에게로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감사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어느 목사님의 감사에 관한 설교 말씀 중 장미 가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어느 날 장미꽃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왜 가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 질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너에게 가시를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가시나무였던 너에게 장미꽃을 주었다."

인생은 해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힘든 상황을 한탄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할 때 감사하는 삶의 출발점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과 환경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상사하지도 못한 엄청난 감사한 일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팽배해지는 이 시대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나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라는 찬양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서로에게 감사함을 느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  
한달

## 묵상 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 오늘의 5가지 감사제목

### 이웃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3가지 감사표현)

- 예) · 이웃(경비원, 택배원, 직장 동료, 선생님)에게 감사편지를 쓰거나 감사선물 하기  
· 배려하기\_문손잡이 잡아주기, 주차 자리 양보하기, 대중교통 좌석 양보하기, 물건 들어주기

# 환경에 대한 감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유미호 센터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해 ❤️

Week 2

Day THU

## 감사로 시작하는 창조 세계 돌봄

오늘의 묵상  
당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  
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  
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  
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요한복음10  
장 10절)

사람과 지구는 모든 것을 서로 의존합니  
다.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  
면 지구 생태계는 건강해집니다. 예를 들어  
나무를 심거나 강둑을 청소하거나 자연이  
회복될 공간을 마련하는 등 훼손된 생태계  
를 복원하면 삶 전반에 다양한 혜택이 주어  
집니다. 그것이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온 우주 삼라만상을 누리게 하  
셨는데, 우리는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 만드신 후에 조건 없이 살게 하시며 “생  
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  
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며 축복하  
시고, “지키고 돌보라” 명령하셨지만 그 소  
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받은 은총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  
혜택을 알지 못해 감사하지 않은 탓입니다.  
누리지 못하면 주어지는 것에 진정한 감사  
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는 말할 것도  
없고, 빈번해지는 기후 위기 역시 받은 것  
에 감사하지 못하고, 허락된 것 그 이상을  
도둑질하며 살아온 탓입니다. 이대로라면  
지구의 기온은 1.5°C 이상 상승해 회복력  
을 잃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유엔환경계획(UNEP)은 2021  
년 ‘지구 생태계 복원 10년’을 선언하고, 생  
태계가 악화하는 것을 늦추거나 중단하는  
길을 모색 중입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주 서너 편의  
창조 세계 회복을 위한 기도를 나누고 있습  
니다. 기도가 계속되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깊어지고 있고요. 물론  
위기에 처한 창조 세계에 대한 애끓는 마음  
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창조주 하나님  
을 신뢰하고, 더 이상 재난과 죽음의 길을  
거부하며, 나와 내 후손을 위한 생명을 선  
택하게 하고, 보다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  
리라 믿습니다.

## 환경에 대한 감사

감사의 절기를 맞아 받은 것에 충분히 감사하는 기도와 삶을 연습해 봅시다. 탐욕스럽게 살아온 날들을 회개하고 에너지와 먹을거리, 이동 수단을 필요한 만큼만 누리기 위해 애쓰며, 쓰레기 배출도 줄이도록 노력해 봅시다. 그리고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해 봅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히브리서 13장 5절)

나와 지구를 아직도 붙드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법을 제대로 터득해 봅시다. 기후 위기로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도 바꿔 기쁨의 띠 두르고 춤추게 하시고, 지구를 되살리는 새 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자연스레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홈페이지

감사  
한달

## 묵상 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 오늘의 5가지 감사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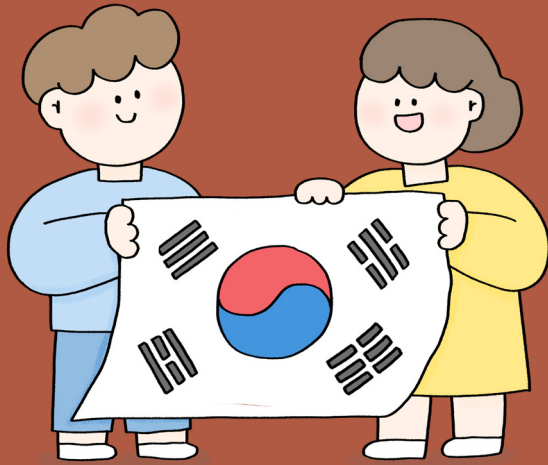
### 환경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3가지 감사표현)

- 예) · 환경을 위한 플로깅, 텀블러 사용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 물 500ml 하루 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 나라에 대한 감사

해외 교민  
김은진 집사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 ♥



Week 2

Day FRI

## Counting Your Blessings

오늘의 묵상  
당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제 첫째 아이의 태명은 '감사'였습니다.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복직 후 더 열정적으로 일하겠노라 약속하고 직장 휴직 후 교환 연구원인 남편을 따라 나선 6개월간의 미국 생활 중 절반이 지난 시점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주간 태명도 짓지 못한 채 여러 가지 걱정에도 휩싸였고, 익숙하지 않은 병원 시스템과 의료보험이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 가능할 수 없는 병원비가 두려워 병원도 찾지 못한 채 공공거리다가 두 달여가 지났습니다.

그러던 중 한인 교회 성도님의 도움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진료하는 공공 의료기관에 갈 수 있게 되었고, 힘차게 뛰고 있는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이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귀한 새 생명을 주셨는데 현실적인 걱정이 앞서 감사하지 않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더 감사하고자 노력했고, 저도 아이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태명을 '염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 는 의미로 '감사'로 지었습니다.

남편의 직장을 따라 해외로 이주한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이상 살아온 내 나라를 떠나 살다 보면 매 순간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빠르고 편리한 의료·행정·대중교통 시스템, 마약과 도박이 적고 안전한 대한민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깨달으며 감사하게 될 때도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때 서로 도움을 주는 건 단연 우리나라 동포입니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공감하고 의지하며 힘든 이민 생활을 헤쳐나가고, 이미 그 과정을 겪은 이민 선배님들의 조언과 도움으로 어려움을 해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한인 교회'입니다. 120년 역사를 가진 미국의 한인 교회와 더불어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는 한인 교회와 대한민국 국민임이 큰 감사제목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은 물론 믿지 않던 사람들도 한인 커뮤니티를 접하

## 나라에 대한 감사

기 위해 교회에 출석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한인 교회는 해외에서 이민자들의 신앙 기반을 형성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현지 사회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합니다. 저 역시도 길지 않은 이민 생활 중 임신, 출산, 육아, 남편의 교통사고 등 삶의 굴곡궤곡한 과정을 겪으며 감사하게도 교회 동역자들의 도움과 중보기도의 힘을 깊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는 삶에 대한 감사’도 큼니다. 한 치 앞을 모르는 것이 인생이지만, 외국에 체류하면서 겪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정한 신분은 이민 생활을 두렵게 만듭니다.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신분의 문, 기타 시스템 등 산 너머 산같이 느껴지는 삶이지만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경험하고 선택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됩니다.

“Counting Your Blessings!(우리말 제목은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라는 찬양의 말처럼 지금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헤아려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 안에서 가진 것이 가지지 못한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동포를 허락하셔서 어려움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보호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허락하시고 평안할 때든 어려울 때든 늘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넘칠 때 걱정과 힘듦은 멀리 달아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립보서4장 6~7절)

감사  
한달

## 묵상 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 오늘의 5가지 감사제목

### 나라에 대한 감사를 느끼며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3가지 감사표현)

- 예) · 나라에 감사하며 기도하기
- 우리나라 복음의 역사 알아보기

### 한 주간 묵상을 통해 교회 공동체와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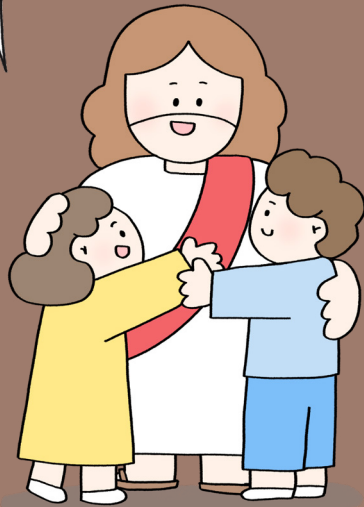
# 하나님께 대한 감사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

Week 2

Day SAT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해요 ♥



오늘의 묵상  
낭독 & 찬양



휴대폰 카메라를  
가까이 대세요

감사가 넘치기 위해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전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일

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필사하는 정성도 필요합니다. 성경 암송은 더 없이 좋은 도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권면하고 공동체에서 말씀

##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을 나누다 보면 그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 1.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결단입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결단하는 행위 속에 능력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이유를 따지고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군인이 명령에 순종하듯 단순한 마음으로 감사의 삶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결단 속에 감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감사하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론과 논리를 뛰어넘는 감사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감사할 게 없다고요? 참기를 짜듯이 쥐어짜보세요. 생각지도 못한 감사한 일들이 떠오를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편 34:1)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 다니다가, 적군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며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했던 때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렇게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잃지 않겠다

고 결단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스러운 자리에 빠져 죽고 싶은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의 결단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 2.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습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18절을 이렇게 의역하였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무슨 일에든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생활방식’입니다.”

감사는 결단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가 생활방식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몸부림 쳐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감사의 길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불평불만의 길을 너무 많이 만듭니다. 아무 생각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불평이요 불만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생활방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감사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것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한 본문의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를 원어로 보면 다 현재형입니다. 문법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일회적인 권면이 아니라 지속적인 권면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양치질은 어제 했으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해야 하는 일인 것처럼 감사는 습관이 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길이 만들어져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그렇습니다. 불평 불만의 길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결단하고 감사의 길을 만들기 위해,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3.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고침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침 받은 열 명의 나병환자 중 딱 한 명만 예수님께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아홉 사람을 생각하며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다 뿐이지 그들도 마음으로 고마워했는지 어떻게 아는가? 혹시 그들이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쑥스러워서 감사를 표현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본문은 감사의 속성이 가진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감사를 했는지 여부보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완성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감사'(感謝)는 '느낄 감'(感), '사례할 사'(謝)로 되어 있다. 또한 '사'(謝)는 '말씀 언'(言)과 '쏘 사'(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즉 양궁에서 활을 쏘듯이 '말'을 쏠 때 감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윌리엄 아서 워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선물을 주지 않고 포장만 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포장만 해 놓고 전달하지 못한 선물이 마음의 창고에 얼마나 쌓여 있나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표현하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작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쏟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15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한달

## 묵상 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

### 오늘의 5가지 감사제목

###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느끼며 어떤 것을 실천하면 좋을까요? (3가지 감사표현)

예) · 한 주 감사제목으로 가정예배 드리기(감사찬양, 기도, 추수감사절 헌금 준비)



# 감사 이어가기: 감사일기

Week  
3~4



하루하루 일상을 살아가다가  
감사함을 느낀 순간들을 기록해 보세요.

##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감플리: '감사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은혜 가득한 감사일기를 적어보세요.

---

---

---

---

---

---

---

---

##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

---

---

---

---

---

---

---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시 136:1)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

---

---

---

---

---

---

---

---

---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

---

---

---

---

---

---

---

---

---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

---

---

---

---

---

---

---

---

---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

---

---

---

---

---

---

---

---

---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오늘의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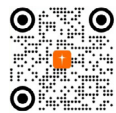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오늘의 감사

20 . . .



매일 감사일기와  
함께하는 감플리

감사  
한달

